문경세계명상마을, 12월엔 '쟌 세븐데이'

12월 5~11일, 7일간 집중 참선
휴대전화 반납하고 좌선 · 행선
2022년부터 3200여 명 참가
각산 스님 지도…선착순 접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집중 참선 프로그램 '쟌 세븐데이(Jhan Seven Day)'를 진행한다.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에 따르면 '쟌 세븐데이'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일주일간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연인원 3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수행은 올해 마지막 일정이며, 앞서 진행된 8월과 10월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됐다.

'쟌(Jhan)'은 삼매와 선정을 뜻하는 팔리어 '쟈나(Jhāna)'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불교 전통의 전승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챤(Chan)', 일본에서는 '젠(Zen)', 한국에서는 '선(禪·Seon)'으로 자리 잡았다.

쟌 세븐데이는 초기불교 수행법인 안반선(아나빠나사띠)과 한국불교의 화두명상인 간화선을 아우르며 사마타와 위빠사나, 정혜쌍수의 통합 수행을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입소와 함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수행에 집중한다. 좌선과 행선(걷기명상)을 병행하며 철저히 묵언을 유지한다. 매일 조별 개인 수행 점검이 진행되며 염력명상 체험과 저녁 법문도 마련된다.

참가 인원은 80명이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인의 반복 신청은 제한하고 있다.

숙박과 식사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무단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비 9만원을 받으며 국가유공자는 접수비의 30%를 할인한다. 숙소는 다인실을 기본으로 하며 1인실인 '꾸띠'와 특실은 별도 후원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수행 지도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선원장이자 사단법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회장인 각산 스님이 맡는다.

각산 스님은 해인사에서 출가한 뒤 제방선원과 태국 숲속 수행처, 미얀마 파욱센터, 호주 보디냐나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정진했다. 2016년에는 국내에서 세계명상대전(WMC2016)을 개최하며 명상 대중화에 나선 바 있다.

각산 스님은 "'쟌(禪)'은 윤회로부터 해탈·열반하는 확철대오와 팔정도, 일행삼매의 불교 수행"이라며 "완전한 깨달음인 돈오돈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마음이 통달되면 세상이 통달된다"며 "세계명상마을의 쟌 세븐데이 수행을 통해 자신을 깨우고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 접수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해야 한다.

아도 화상 '천년향' 도리사서 다시 피어나다

10월 3일, 제10회 향문화대제전
천년수향식 · 아도 화상 헌향재 등


구미 도리사가 10월 3일 개최한 제10회 향문화대제전에서 '천년향'을 이운하는 모습.

신라에 불교와 향을 전한 아도 화상의 전법정신을 기리고 우리 전통 향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향문화대제전이 구미 도리사에서 봉행됐다.

구미 도리사(주지 현관 스님)는 10월 3일 '도리사 개산 1609년 제10회 향문화대제전'을 개최했다.

향문화대제전은 신라불교 전래 1600년을 기념해 2017년 시작됐다. 도리사는 전통 불교 향례의식을 복원하고 이를 정례화해 향문화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올해 행사는 천년수향식, 천년향 이운, 아도 화상 헌향재, 향연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문을 연 천년수향식은 1600여 년 전 아도 화상이 신라에 전한 향을 현재로 이어받는 의식이다. 천년향을 향연에 모셔 도리사 경내를 행렬하는 이운이 진행됐으며, 아도 화상의 전법정신을 기리는 헌향재가 봉행됐다. 마지막으로 사부대중과 시민이 함께하는 향연제가 열려 전통 향문화의 의미를 나눴다.

특히 올해 행사는 향을 정신문화이자 생활문화, 그리고 미래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려는 도리사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부주지 인월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향문화대제전이 아도 화상의 용기와 개척정신을 일깨우는 각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들이 구미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했다.

아도 화상이 신라에 불교와 함께 향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 등에 전해진다.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온 아도 화상이 향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병든 성국 공주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다.

도리사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향과 명상, 치유를 결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향을 피워 올리는 의례를 넘어 향을 매개로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1600여 년 전 신라에 전해진 한 줄기 향이 불교문화와 함께 이어져 오늘날 지역의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확장되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탄신 177주년 경허 스님 가르침 새겨

수덕사, 10월 4일 다례재 봉행
설정 스님 "맑은 마음 살펴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0월 4일 대웅전에서 경허당 성우대선사 탄신 177주기 다례 및 합동다례재를 봉행했다.

9세에 출가한 경허 스님은 동학사에서 만화 보선 스님에게 경전을 배우며 학문을 익혔다. 유불선의 학문을 두루 섭렵했고 젊은 나이에 강사가 돼 전국에서 학인들이 찾아올 만큼 이름을 떨쳤다.

어느 날 죽음의 문제를 현실에서 마주하면서 자신이 해온 공부를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된 경허 스님은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수행 끝에 견성에 이른 스님은 쇠퇴했던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후대에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법문을 남기면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

다례재에서 설정 스님은 "본래 맑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인의 진실한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광·도천 대종사 유훈 이어 전법 매진"

화엄사, 10월 3일 합동 다례재
수행가풍 · 노동선 정신 새겨



근현대 화엄사의 두 기둥으로 불리는 리산당 도광 대선사와 도천당 도천 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3일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리산당 도광 대선사 원적 42주기·도천당 도천 대종사 원적 15주기 합동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과 회주 종렬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여·돈명 스님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 명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생전 도광·도천 대종사의 육성법문을 들으며 두 선사가 남긴 가르침과 수행자의 삶을 되새겼다. 이어 영전에 향과 차, 꽃을 올리며 평생 수행과 후학 양성에 헌신한 뜻을 기렸다.

행장을 소개한 종고 스님은 검은 고무신에 바랑을 메고 제방을 다니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켰던 도광 스님의 수행가풍과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도천 스님의 '노동선(勞動禪)' 정신을 소개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두 큰스님의 법향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화엄문도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유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부도전에서 두 스님의 부도를 참배하고 일생 동안 보여준 수행과 후학 양성, 불교 중흥의 원력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다.

리산당 도광 대선사(1922~1984)는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1937년 범어사에서 동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봉암사·백양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하며 정진했으며, 도천 스님과 함께 담양 보광사를 창건하고 불교정화운동에도 헌신했다. 백양사·범어사·용주사·화엄사·해인사 등 주요 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80년 화엄사 주지로 취임해 중창불사를 이끌었다. 1984년 세수 63세, 법랍 47세로 원적에 들었다.

도천당 도천 대종사는 1910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41년 금강산 만회암에서 출가했다. 표훈사에서 도광 스님과 도반의 인연을 맺고 수행했으며, 1949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담양 보광사 창건과 선원 수행, 후학 양성에 힘썼다. 특히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일'이라는 노동선의 가풍을 몸소 실천하며 평생 정진했다. 2011년 금산 대둔산 태고사에서 세수 102세, 법랍 83세로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음식 만들며 마음 쉬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10월 4~5일과 9~10일 '사찰음식으로 여유와 힐링을 찾다'를 주제로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소방서와 지역난방공사, 수목원, 학교 교사 등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신청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음식을 만들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범패·작법무로 되살린 불국정토

10월 3일 광주영산재 22차 시연
범음 · 범패 명인 등 전승자 참여



범패의 장엄한 법음과 작법무가 무등산 자락에 울려 퍼지며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호산 스님)는 10월 3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22차 광주영산재 공개 시연회'를 봉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전통을 잇고 신명을 나누다'를 주제로 열린 '2026 무등울림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연에는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광주영산재 범음 분야 명인 혜령 스님과 범패 분야 명인 호산 스님,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회원 스님들이 참여했다.

영산재 시연은 도량으로 불보살과 옹호성중, 영가를 청하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병천·제석천·사천왕·팔부호법신중 등을 청해 도량을 수호하기를 발원하는 '신중작법'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가의 업을 씻고 청정하게 하는 '대령관욕', 지장보살을 청해 영가의 명복과 해탈을 발원하는 '상주권공(지장청)', 영가전에 공양을 올리는 '관음시식',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보내드리는 '봉송의식'이 차례로 펼쳐졌다.

광주영산재는 2014년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영산재 시연과 전승 활동을 이어왔으며, 1992년 전통불교영산회 창립을 거쳐 2006년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를 설립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적음 대선사 65주기 추모다례

공주 신원사, 10월 3일 봉행



공주 신원사(주지 성관 스님)는 10월 3일 부도탑과 대웅전에서 '초부당 적음 대선사 열반 65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했다.

초부당 적음 대선사는 1900년 11월 1일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15세에 김천 직지사에서 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직지사에서 수선안거를 지내고 1927년 사교과를 마쳤으며, 1930년 만공 스님에게 입실건당해 '초부(草夫)'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후 1931년 선학원 상임포교사, 1934년 조선중앙선리참구원 상무이사를 거쳐 선학원 제3·5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1935년 조선불교선종 종헌 반포 당시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범행단을 결성해 청정비구승단의 기틀을 닦았다. 1954년 정화운동 발기인대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효봉 스님과 공동명의로 전국비구승대회를 소집하는 등 교단 정화에 힘썼고, 1955년 마곡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1년 10월 3일 세수 61세, 법랍 39세로 입적에 들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종협 대종사 23주기 추모다례

대구 파계사, 10월 6일 봉행



대구 파계사(주지 현봉 스님)는 10월 6일 설법전에서 고송당 종협 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고송문도회와 일우문도회 스님들과 파계사 주지 현봉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종사 영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삶을 기리고, 가르침과 수행정신이 후학들에게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이어 참석 대중은 부도탑을 참배했다.

다례재 후에는 문도와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10월 15일 치러지는 제19대 동화사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고송문도회 대표로 출마한 명진 스님(파계사 총무국장)이 문도 스님들에게 출마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파계사는 내년 종협 대종사 탄신 121주년을 맞아 탄신일인 음력 10월 10일에 맞춰 추모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강릉 보현사 '산사천년문화제'

10월 3~4일 산신대재 · 음악회 등



강릉 보현사가 자장 율사와 범일국사, 낭원 대사 등 강릉 불교문화의 큰 스승들을 기리고 천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의 장을 펼쳤다.

강릉 보현사(주지 승원 스님)는 10월 3~4일 '2026 보현사 산사천년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산사천년문화제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비롯해 삼대화상 다례재, 산사음악회, 사찰음식 전시, 차문화 체험, 불교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문화제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삼대화상 다례재를 봉행하며 자장 율사·범일 국사·낭원 대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렸다. 경내에서는 '절제와 기다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 전시와 차문화 체험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통 사찰음식에 담긴 수행과 절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차를 직접 체험하며 산사의 여유와 불교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격 강원지사장